



F1 조직위 이개호 사무총장

“지구촌이 함께하는 축제 안방처럼 편하게 즐기세요”

“올 가을 영암 서점에서 출발한 새시대의 멋진 질주를 감상하세요.”

F1 코리아 그랑프리 조직위원회 이개호 사무총장은 개막을 앞두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자신했다. 4회째 대회를 맞아 국내에도 F1을 즐기는 팬들이 늘었고, 그 어느 대회보다 철저한 준비와 운영으로 박진감 넘치는 경주가 펼쳐져 지난해 기록한 관람객 16만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대회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운영인력 및 말자-장비의 효율적 배치를 통해 더욱 견고한 관람 문화를 만들겠다”면서 “4000여명의 대회 운영 인력을 투입해 관람객의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관람객을 겨냥한 Rock 콘서트, K-POP 헌류 콘서트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문화행사는 F1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또 국내에는 아직 모터스포츠가 자리 잡지 않았지만 F1은 전 세계 6억명이 즐기는 역동적인 스포츠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F1은 전담을 세계에 알리는 효과뿐 아니라 지역내 직접소비까지 389억원, 해외미디어 노출을 통한 브랜드 가치 상승 2358026억원 등 경제적 효과가 대단하다”면서 “전남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을 견인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3년 연속 16만여명의 관람객이 영암 서점을 다녀갔고, 185개국 약 6억명의 시청자가 F1을 보기 때문에 국가브랜드를 알리는데도 효과가 있다. 미디어 노출 효과 2조 8026억원, 국가 홍보효과 1505억원, 기업 이미지 제고효과 1879억원, 기업수출 증대효과 5조 4905억원 등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올 F1 대회를 대회 전체적인 수치를 개선하고, 대회가 열리지 않는 비시즌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활수기자 bungy@kwangju.co.kr

심장 가르는 ‘질주의 축제’ ... 영암벌, 잔치 준비 끝났다



스피드 업·추월 시도 ‘DRS 구간’ 확대 1만8천 rpm 엔진음 들을 마지막 대회

세계인의 스피드 축제 '2013 F1 코리아 그랑프리'(10월 4일~6일)가 가을 영암 서점을 화려하게 물들인다. 올 F1 한국대회는 빠르게 질주할 수 있는 DRS(Drag Reduction System) 구간을 확대해 더욱 박진감 넘치는 경주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제바스티안 페텔(독일·레드불)의 독주가 한국대회에서도 이어질지 여부 등 볼거리가 더욱 풍성하다.

◇올 시즌 달라지는 것들=F1 대회는 해마다 규정을 조금씩 변경하기 때문에 개막 전, 지난 시즌에 비해 달라진 것은 무엇인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대회 특징은 크게 ▲주간 경기에 대한 적용 ▲마지막 1만8000 rpm 대회 ▲한국대회 DRS 구간 확대.

앞서 열리는 싱가포르 대회가 야간 경기로 치러지기 때문에 주간에 펼쳐지는 한국대회는 누가 낮 경기에 무리없이 적응하느냐가 우승 관패를 가를 수 있다.



페텔 독주나 알론소 저지냐 ‘홍미진진’ 예선·결승전 씨스타 등 K 팝 공연 풍성

올 보다 쉽게 만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 대회까지 영암 서점 메인 그랜드스탠드의 뒷쪽에 DRS 구간이 한 곳 있었지만 올해는 그랜드스탠드 앞에도 DRS 구간이 지정된다. 메인 그랜드스탠드를 중심으로 DRS를 사용해 더욱 빠른 질주와 추월 시도를 볼 수 있게 되면서 한국 대회가 더욱 짜릿해 질 전망이다.

◇페텔의 독주 계속되나? = 제바스티안 페텔(독일·레드불)이 F1 이탈리아 대회에서 우승하며, 올 시즌 우승에 한 발 다가섰다. 싱가포르(결승전 22일)와 한국대회에서 선전한다면 사실상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다.

페텔은 지난 8일 이탈리아 몬자에서 열린 2013 시즌 F1 12라운드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 5.783km의 서킷 53바퀴(총 307.029km)를 1시간18분

33초3520에 달하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페텔은 말레이시아, 바레인, 캐나다, 독일, 벨기에 대회에 이어 시즌 6승을 올리고 있다.

4년 연속 종합 우승에 도전하는 페텔은 시즌 랭킹 포인트 222점을 쌓아 2위 알론소(189점)와의 격차를 33점으로 벌렸다. 컨스트러터(팀) 부문에서는 레드불이 353점으로 압도적 1위를 유지했다.

지난 대회까지 컨스트러터 부문 3위이던 페라리(248점)는 메르세데스(245점)를 끌어내리고 2위로 밀려났다.

◇풍성한 공연도 놓치지 마세요 = 지난해 F1 한국대회를 물들였던 수준높은 K-POP 공연이 올해도 이어진다.

F1 조직위는 예선전과 결승전이 열리는 10월 5일~6일 수준 높은 공연을 준비했다. 5일에는 상상페스티벌 주창자부터 국내 유명 가수 10팀의 합동 공연이 펼쳐지고, 6일에는 2PM과 씨스타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의 공연이 펼쳐진다.

전일권을 구입하면 이를 공연을 모두 관람할 수 있고, 하루 티켓은 당일 공연만 볼 수 있다.

/오광희기자 kroh@kwangju.co.kr

우승자 맞으면 ‘SM7’ 내거 조직위, 태플릿 PC 등 경품행사

전남도 F1대회조직위원회는 다음달 4일 개막하는 2013 F1국제자동차경주 한국대회(코리아 그랑프리) 관람객을 위한 ‘대박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한국대회 우승자를 맞은 관람객에게는 수첩을 통해 중대형 SM7 등 자동차 3대, 태블릿 pc 3대, 라미노 호텔 숙박권 등 80명에게 푸짐한 경품이 돌아간다.

대회 3일간 경주장을 찾은 관람객이 대상이다. 우승 후보자 이름을 휴대전화 #4141로 문자를 전송하면 된다. 응모 기간은 10월 4일 오전 9시부터 6일 오후 3시까지다.

6일 오후 6시 전산추첨으로 확정하고 다음날 F1조직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온라인(옥션마켓, 마켓)으로 F1 입장권을 구매한 고객을 위한 기획행사도 마련됐다.

9월 중 구매 고객에게 응모작이 자동으로 주어지며 30일 추첨을 통해 레드불 팀 재킷, 레포즈 자켓, 호텔 디너권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개호 F1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국민에게 사랑받고 다 함께 참여하는 F1대회가 되도록 이번 경품행사를 마련했다”며 “많은 분들이 F1대회 관람을 통해 대박행운의 기회를 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F1대회조직위 홈페이지(www.koreangp.kr)에 자세한 사항이 게재되고 있다.

/정활수기자 bungy@kwangju.co.kr

미래 F1 스타 도전! 도, 전 연령 대상 카트스쿨 운영

“미래 F1 스타를 꿈꾸세요.”

전남도는 모터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영암 F1 서킷 카트경기장에서 초·중·고·대·일반인 을 대상으로 ‘F1 카트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3일 막을 내린 이번 F1 카트스쿨에는 국내 최고의 강사진이 참여, 등급별로 이론과 실기교육을 했다.

첫 날인 지난 9일 140여 명이 몰렸으며, 10일에는 80여 명이 교육을 마쳤다. 참가 연령층은 1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하며 도내 여러 지역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13일까지 60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등급별로 카트 라이선스를 발급했다. 또 참여자 중 우수한 성적과 주행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는 도지사제 카트대회 아마추어 선수 출신 기회도 제공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카트스쿨을 통해 이를 통해 프로 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하고 카트스쿨에서 배웠던 실력을 경기로 통해 발전시켜나간다면 모터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원서 F1대회지원담당관은 “모터스포츠의 근원이 되는 카트 저변을 확대해 F1카트장을 가깝단위 건전한 레저문화 향유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활수기자 bungy@kwangju.co.kr

추석에는 보름달처럼 행복하세요.

결실의 계절과 함께 찾아온 한가위 모든분들 가슴마다 정겨운 추억으로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고향길 잘 다녀 오십시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드립니다

복고당 한복은행
광주광역시 서구 화동동 179-59 T. 062-369-9227

주민과 함께 상수원을 맑게하는 「친환경관리계약제」

친환경관리계약제는 국가와 토지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는 소유주에게 토지이용 제한에 따른 손실금을 보상하고 토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동방, 저류지)을 설치하여 수질개선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친환경관리계약제 대상지역
-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중 하천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 등

계약 대상요건
- 대상 토지가 단일한 필지 혹은 토지전체로서 토지면적이 최소 1,000㎡이상인 토지

보조금 지급
- 직전년도 경작작물의 농촌진흥청 발간 소득통계금액을 바탕으로 휴경면적에 대하여 금액 산정

신청기한 : 2013년 12월 30일 까지

문의 및 접수처
- 영산강유역환경청
• TEL : 062-410-5351
- 광주·전남 환경보전협회
• TEL : 062-350-5847